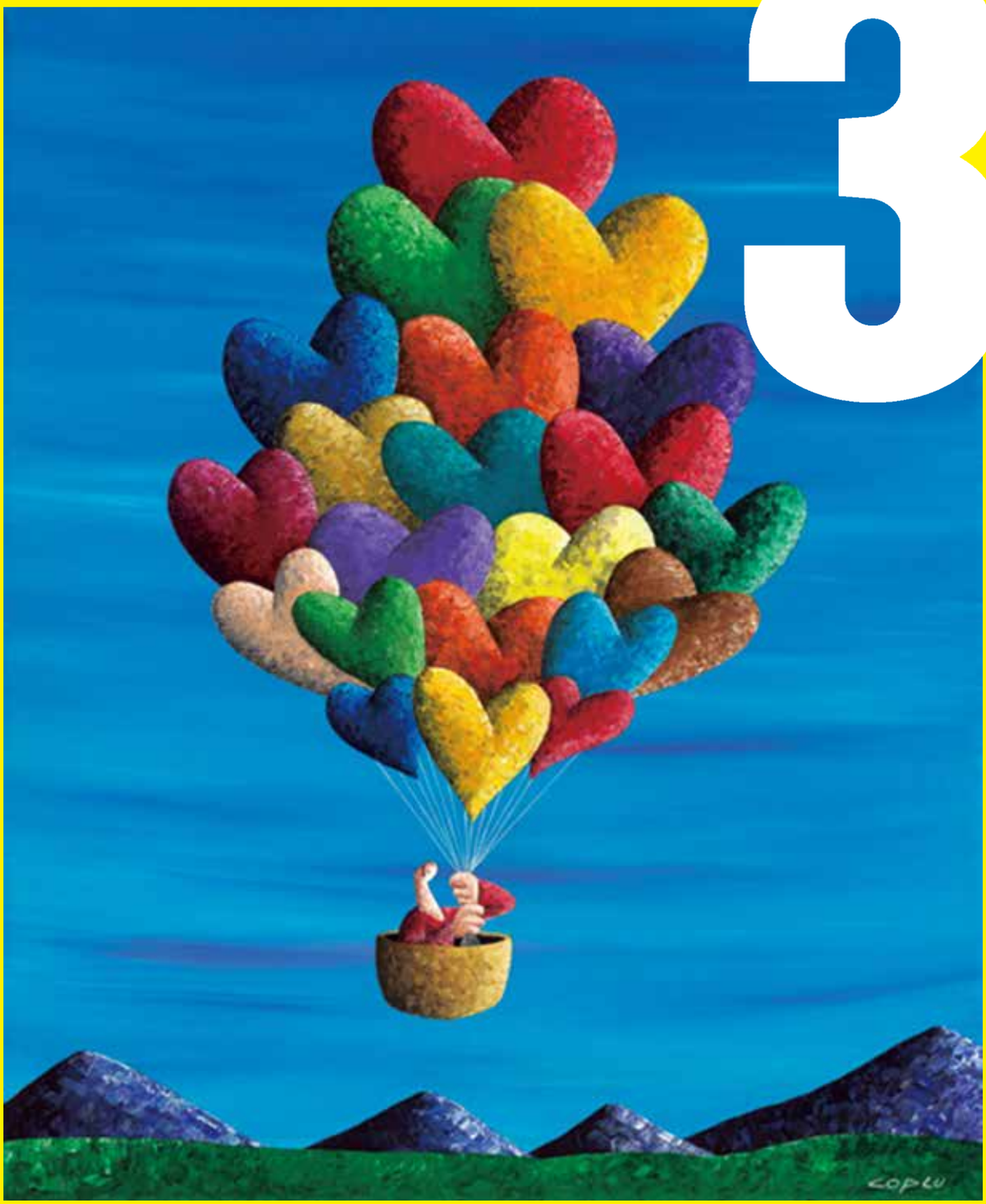
오뚜기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

한국심장재단과
함께한
오뚜기 기부
30년

함께해서 더 행복합니다



30

1992~2022

우리가 바라는 대로

어린이들과 가난한 이들, 괴로운 이들과 외로운 이들에게
항상 미소 지으십시오.
그들에게 사랑이 깃든 행동뿐 아니라 마음도 함께 주십시오.
우리에겐 줄 것이 그다지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에서 솟아나는 기쁨만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언제라도 줄 수 있습니다.

_ 마더 테레사

표지와 이 페이지에 실린 그림은 튀르키예 화가 Coplu의 작품입니다. Coplu는 2015년 11월 서울 심여화랑에서 자선전시회를 열고 이때 전시된 작품들을 한국심장재단에 모두 기증했습니다. 그림 중 일부는 한국심장재단에서 (주)오뚜기에 선물로 전달해 현재 오뚜기센터 로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www.facebook.com/coplupage에서 사랑과 인생을 주제로 한 Coplu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표지 그림 <IN SEARCH OF LOVE>, 위의 그림 <LOVE FOR ALL>.

COTENTS

04 **인사말** _ 박영환 한국심장재단 이사장

06 **감사의 글** _ 함영준 (주)오뚜기 회장

08 **Interview**
함태호 명예회장 스토리
한국심장재단 조범구 전(前) 이사장

18 **With LOVE**
오뚜기 및 관계사 지원 현황

24 **With HOPE**
새 생명 탄생의 역사

40 **With FRIENDSHIP**
오뚜기와 함께한 행사들

58 **감사합니다 & 사랑합니다**
환자와 가족들의 감사편지

76 **Story+**
특별한 그 이야기

84 **한국심장재단 소개**

사회복지법인 한국심장재단

발행인 박영환 **편집인** 이종길 **발행일** 2022년 11월 1일
후원 및 감수 (주)오뚜기 홍보실 02-2010-0718 **제작대행** 봄이다 프로젝트 02-733-7223
주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5가길 11, 207호(신천동 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이메일 heart@heart.or.kr **대표전화** 02-414-5321~3 **후원 문의 사업팀** 02-416-8763(내선 2번)

진정성 있는 오뚜기의 기부 문화,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오뚜기와 관계사 여러분의 꾸준하고 따듯한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어린이들과 부모님, 함영준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992년 시작된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에 대한 주식회사 오뚜기의 사랑은 점차 확대되어 지금은 10개의 관계사와 함께 매월 많은 수술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오뚜기의 꾸준한 사랑 실천으로 현재까지 117억 8,200만 원이라는 소중한 후원금이 모금되었으며, 총 5,749명의 심장병 어린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환자뿐 아니라 환자의 가족들, 그리고 이 사회에 끼친 선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실로 대단한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함태호 명예회장님으로부터 시작한 이 사랑의 물줄기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흘러넘쳐 거대한 생명의 강을 이루었습니다. 강들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오뚜기로부터 시작된 사랑은 다시 5,749명의 어린이들을 통해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30년의 긴 세월 동안 묵묵하게 사랑을 펼쳐오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뚜기의 진정성 있는 기부문화가 이 사회에도 큰 감동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심장재단이 주식회사 오뚜기와의 인연으로 고귀한 생명을 되찾는 일을 함께할 수 있었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많은 심장병 어린이들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되찾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한국심장재단 이사장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합니다

오뚜기가 심장병이 있는 아이들의 수술비를 지원한 지 어느덧 30년이 흘렀습니다.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 사회공헌활동은 오뚜기의 창업자이신 선친 함태호 명예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오뚜기 관계사는 물론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어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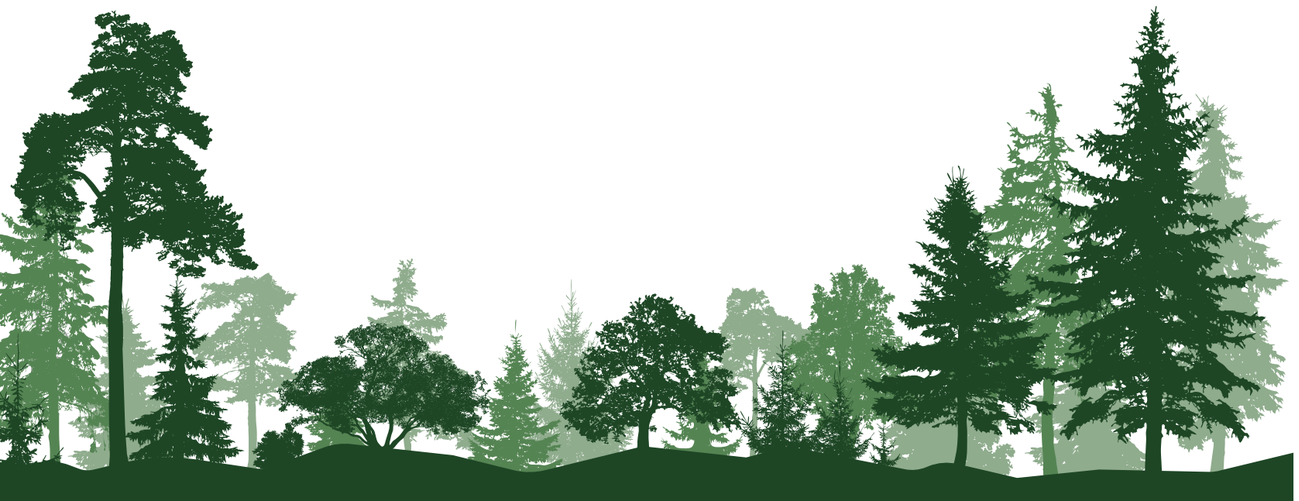
어린이는 바로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아이들의 티 없이 맑은 웃음을 대하면 보는 사람도 따라 웃기 마련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오뚜기는 심장병을 이겨내고 환하게 웃는 아이들의 웃음을 보며 함께 웃고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 모두가 한국심장재단에서 오뚜기와 함께 심장병 어린이들의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뚜기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돕기 30주년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축하해주신 한국심장재단 이사장님과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뚜기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되찾은 5,749명의 아이들이 앞으로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며, 우리 사회를 더 밝고 희망차게 만들어가길 기원합니다. 그 길에 오뚜기가 앞으로도 한국심장재단과 함께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주)오뚜기 회장
함영준

“어린이는 미래에 활짝 꽃을 피울 우리의 소중한 새싹이다”

오뚜기 창업주 함태호 명예회장의 평전 <나무, 숲이 되다>에 실려 있는
여러 목소리들은 그가 평생 지켜온 기업경영과 인생에 대한 철학을 말해줍니다.
오늘 여기서 그 작은 목소리들을 다시 읽으며,
함태호 명예회장의 숭고한 기부 정신을 거듭 새겨봅니다.



#혼자

기업체 대표들은 일반적으로 병원 예약이나 접수나 모든 걸 비서들이 합니다. 병원에서도 VIP로 특별 대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혼자 오시거나 가족과 함께 오셨지, 비서든 사원이든 누군가에게 예약을 대신 시키는 일이 없었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는 일은 회사와 무관한 개인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접수 창구에서부터 여느 환자와 마찬가지로 번호표를 뽑아 기다리고, 진료과 앞에서도 줄을 서서 기다리셨습니다. _ **권오정 (삼성의료원 삼성서울병원장)**

#한 그릇

함 회장님은 제품이 나오면 반드시 시식을 했고, 라면은 더욱더 그랬습니다. 보통 시식을 하면 다 먹지 않기 마련인데 회장님은 반드시 한 그릇을 다 드셨습니다. “한 젓가락 먹는 것과 한 그릇을 먹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것이 회장님의 지론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라면을 끓여도 물의 양이나 불의 세기 조절을 본인이 직접 해서 끓여 드셨습니다. 먼 훗날에는 끓여서 가져온 라면을 시식했지만, 당시에는 여사원이나 연구소 사원이 만들어온 것은 사양했습니다. “집사람 시키지 말고, 자네도 직접 요리를 해서 먹어봐! 직접 끓여 먹어야 소비자 입장이 되는 거야.” 제게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_ **강신국(前 오뚜기 부회장)**

#또 하나의 식탁

“공장에서 갓 출고된 제품은 신선하고 맛이 있지만, 우리의 소비자들은 우리 제품을 할인점, 백화점, 편의점, 동네 구멍가게 등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시점에 구매하기 때문에 구매 기간이나 시점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맛을 동일하게 품질을 높이고 신선한 제품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할 기술이다.” 함 회장님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매를 하다 보면 이른바 ‘저(低) 회전’ 상품이 있어 반품을 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우리 회사는 유통기간이 2개월 남은 제품은 바로 반품 처리하여 푸드뱅크에 지원합니다. 신선한 식품을 소비자의 식탁에 올리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우선이겠지만, 부득이 푸드뱅크에 의존해 하루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또 다른 우리 주위의 소외된 분들의 식탁 또한 소중한 식탁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_ **박재민(前 오뚜기 부사장)**

#동기

함 회장님이 식품회사를 만든 동기 가운데는 물론 영리의 목적도 없다고 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배고픔과 영양 부족에 시달리다 6·25전쟁까지 겪으며 더욱 궁핍해진 1960년대 국민들 식생활에 대한 걱정이 큰 동기였습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하나같이 배고프고 영양도 결핍한 국민들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잊을 만하면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도 맛나고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는 신념이었지요. 당시 대부분이 가난했던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가졌을 법한 마음입니다. 기업인이기 이전에 그런 마음을 가진 식품회사 경영자라면, 질 낮은 원료를 쓰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돈 벌려고 가격을 올리지도 못하는 법이지요. _ **함정호(변호사)**

#귀가 아프게

식품회사 경영자로서 함 회장님은 “최고의 품질로 고객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신념과 사명감을 갖고 계셨습니다. “최고의 품질을 위해서는 최고의 원료로 최고의 시설에서 가장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귀가 아프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은 오뚜기 임직원들의 마음속에 다음과 같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_ 이강훈(前 오뚜기 사장)

#반드시

함 회장님은 본인이 맛보지 않은 제품은 절대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들이 제품을 개발하거나 개선 하면 반드시 시식회에 참석하거나 수시로 별도의 평가회를 가진 후 의견을 내고 또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나 세계를 대표하는 식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소비자의 입맛과 건강을 생각하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늘 했지요. _ **이강훈(前 오뚜기 사장)**

#꿀밤 열 대

어릴 때 원산 집에서부터 밥을 먹다가 밥알 한 알 흘리면 큰 형님이 꿀밤 열 대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생들은 밥 먹다가 혹시 흘리더라도 그 흘린 밥알이 그릇 안으로 떨어지면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벌을 피할 수 있었거든요. 형님은 “음식을 만든 어머니를 생각하면 남김없이 맛있게 다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거 같습니다. 식품은 더 맛있게 더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어쩌면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_ **함창호(前 상미식품 회장)**

#노란색

우리 제품은 대부분 포장재에 사색(社色)인 노란색을 사용하는데, 그게 오랜 전통입니다. 노란색을 포장재에 사용하는 이유는 노란색이 창업 제품인 카레의 색상이고, 일반적으로 색 중에 최고로 빛을 발하는 색이며, 화려하고 젊고 활발한 외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란색은 안전과 확장 및 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포장재에 노란색을 일관되게 사용하여, 노란색을 보면 오뚜기 제품을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 회장님은 포장재에 사용되는 노란색을 통일하기 위해 정확한 표준 컬러인 오뚜기만의 지정 노란색을 정해 수시로 정확한 노란색이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_ **김낙현(오뚜기제유 대표이사)**

#물 한 잔

아버님은 물 한 잔도 허투루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시다가 물이 남으면 물이 담긴 컵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꺼내 드셨지요. 부득이 종이컵을 사용해야 할 때는 성함을 적어두었다가 다시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양복은 딱 세 벌이 있었습니다. 그걸 직접 관리했지요. 속옷도 다섯 개를 순서대로 준비했습니다. 순서대로 안 하면 서랍장 위에 놓인 것만 입게 되니까 순서대로 돌아가도록 정리했습니다. 절대 남의 손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의 아버님, 그러니까 할아버님께서 식품회사를 하면서 아버님이 다양한 음식을 접했던 까닭에 ‘먹는 일’을 중요하고 즐겁게 생각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가 열악한 걸 가슴 아파하면서 식탁에서의 가족의 행복, 식품이 가진 의미를 중요시했습니다. _ **정세장(사위, 면사랑 사장)**

#가방

외국 출장 때도 다른 사람이 절대 본인 가방을 대신 들지 못하게 하고 직접 들고 다녔습니다. “들 수 있을 만큼의 짐만 싸오기 때문에 혼자서 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며 실제로 불필요한 짐을 줄였습니다. 혹시 여행 가방이 크면 남의 신세를 지게 될 테니까요.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도 구내식당에서 직접 식판을 들고 줄을 섰다가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런 자세는 늘 한결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직원이 회사를 위해 일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족 그 이상의 마음으로 반드시 도움을 주었습니다. _ 김선명(前 오텍스 법인장)

#일일이

월급을 현찰로 지급하다가 통장으로 바뀌던 시절, 직원 부인들을 모두 불러서 파운드케이크를 나눠주시면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임을 강조하고, 직원 부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송년모임 때도 직접 접시를 들고 다니며 부인들에게 음식을 권하면서, 가족들 누구 아픈 사람은 없는지, 아이들은 건강하게 공부 잘하는지 일일이 묻고 챙겼습니다. _ **백창규(前 오뚜기라면 대표이사)**

#중국집

밤늦게까지 야간 교육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함 회장님이 와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곤 당시 적지 않은 2만 원씩 주면서 “밤늦게까지 고생했는데 가면서 저녁 사먹고 운전 조심해서 가라”고 모두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회의를 마치면 회사 앞 중국집에도 자주 갔습니다. 항상 음식을 푸짐하게 시켰지요. 중국집 오기 전에 회장님에게 야단맞았던 직원이 있으면 꼭 불러서 음식을 더 나눠주었습니다. “네가 미워서가 아니라 경영수업을 시키려고 야단친 거다.” 그렇게 꼭 마음을 풀어주었고 마음 편히 음식을 먹도록 했습니다. 회식이 끝날 때쯤엔 어떤 식당에서건 꼭 따로 음식을 주문해 포장하도록 했습니다.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가져다주라는 거였지요. “자네들 와이프와 가족들이 오뚜기를 위해 더 고생하는 거야. 꼭 감사하다는 내 말 전하고 맛있게 즐기도록 하게.” _ **류인천(前 오뚜기 영업본부장)**

오뚜기의 후원으로 4000번째 새 생명을 얻은 박중욱 어린이 가족과 함께한 함태호 명예회장.

#메모

함 회장님은 연구소에 오면 항상 우리가 준비한 내용보다 더 많은 부분을 세밀히 물어보았습니다. 제품의 원료와 원료 구매처, 품질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맛의 표준은 뭐냐?”, “집에서 끓여 먹으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았냐?” 등의 질문에는 연구원들이 대답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으로 인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식품회사에 근무해야 하는지 배워갔지요. 회장님은 연구발표회마다 꼼꼼하게 메모를 하며 강평을 해주었고, 잘못한 부분은 세심하게 지적해주었습니다. _ **정승현(오뚜기 품질보증본부장)**

#절실한 곳

“홍보한다고 행사나 사회공헌활동을 할 때 절대 생색을 내서는 안 된다. 사회공헌사업은 공정한 절차를 밟아 대상을 선정하고,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기부는 가장 절박한 사람들에게 지원되어야 한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가치 있게 써야 한다.” 회장님은 회사의 사회적 기여는 물론 개인 기부도 ‘가장 절실한 곳’에 ‘가장 가치 있게’ 썼습니다. _ **강구만(오뚜기 홍보실장)**

#창업보국

함 회장님이 임직원들에게 특히 강조한 철학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것, 범사(凡事)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세상이 밝아진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기업으로서의 의무와 역할도 항상 강조했습니다. 창업보국(創業報國), 즉 '사업을 통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는 것은 창업 당시부터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납세를 성실히 하라'는 국가에 대한 기업의 의무, '이익이 줄더라도 법을 지키라'는 준법의 의지도 항상 강조하고 실천했습니다. _ **김선명(前 오텍스 법인장)**

#당면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외부에 생산을 의뢰하는 OEM 제품도 출시했습니다. 당면이 바로 그 시초였지요. 협력업체에서는 우리와 계약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오뚜기에서 가져가 자체 생산을 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함 회장님은 아예 처음부터 이례적으로 5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장을 했지요. "오뚜기만 커가는 건 의미가 없다. 우리와 함께하는 작은 중소기업들도 같이 커가며 자라나는 게 더욱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회장님의 강력한 뜻이었습니다. _ **김광영(前 오뚜기 부사장)**

#알리지 말라

사모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시기 전 암센터에 기부를 하고, 안과 수술을 받은 후에는 안과에 큰돈을 기부했습니다. 기부할 때면 "신문기사나 언론에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뚜기 이름이나 본인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요. 일반적으로 기업이 기부금을 낼 때면 회사 수익금에 비례해서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순이익금이 아닌, 각 계열사의 매출액에 비례해서 기부하도록 계약서를 썼습니다. _ **권오정(삼성의료원 삼성서울병원장)**

#5년

심장병 어린이 지원을 결정했을 당시 회사 규모가 아직 작았습니다. "적자가 나도 지원하겠다." 이런 의지로 5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기업이 오뚜기 말고 또 있을까 싶습니다. 회장님의 그 의지와 지원의 이유는 이랬습니다. "어린이는 미래에 활짝 꽃을 피울 우리의 소중한 새싹이다." _ **이강훈(前 오뚜기 사장)**

#기회

지금도 이런 가르침이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 기회를 보고 잡기 위해서 우리는 늘 준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출발선상에 미리 가 있지 않으면 남들보다 늦을 것이고, 출발선상에 서 있다고 한들 몸을 숙이고 자세를 잡고 있지 않으면 또 남들보다 뒤처질 것이며, 몸을 숙이고 지나가지 않으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항상 몸을 낮추고 준비를 하고 그 기회를 노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_ 정윤정(손녀)

연보

풍림(豊林)
함태호(咸泰浩)
명예회장

1930	함경남도 원산 출생
1952	경기고등학교 졸업
1959	조흥화학 주식회사 입사
1967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1969	풍림상사 설립
1973	오뚜기식품공업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1987	오뚜기라면 주식회사 설립
1988	제8회 연세경영자상 수상
1992	오뚜기식품 주식회사 회장 취임
1992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후원사업 시작
1996	주식회사 오뚜기로 상호 변경
1996	재단법인 오뚜기재단 설립
2005	오뚜기 아메리카 설립
2005	석탑산업훈장 수훈
2007	오뚜기 베트남 설립
2009	주식회사 오뚜기 명예회장 추대
2011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2012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 장애인 지원사업 시작
2015	밀알복지재단 미얀마 교육사업 지원
2016	영면. 9월 12일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받은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고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1999년 한국심장재단 이사를 시작으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한
조범구 前 이사장은 오뚜기의 한국심장재단 30년 기부 역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다.
그가 기억하는 오뚜기의 기부, 함태호 명예회장의 기부 철학에 대해 들었다.
함태호 명예회장은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미래를 살리기 위해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의 수술비를 1992년부터 지원해왔다.

에디터 이나경 포토그래퍼 최재인 사진 한국심장재단 사업팀

함태호 명예회장님은 한국심장재단에 기부를 결정하셨고, 그 기부는 30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전에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2011년부터 한국심장재단의 이사장을 맡은 후 여러 번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함태호 명예회장님을 직접 따로 뵌 것은 단 두 번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분이 워낙 오뚜기의 기부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었어요. 오뚜기가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아예 신문에 기사화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뚜기가 1년에 몇 명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를 돕고 있는지 한국심장재단에서 알리는 것도 극구 만류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거기서 함태호 명예회장님의 기부 정신을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을 직접 뵌 자리에서 기부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런 원칙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의 만남, 그 자리에서 함태호 명예회장님은 기부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오뚜기가 저희 재단을 돕는 일 외에 장애인 돕는 일을 하고 싶어서 구상 중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단체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는 아주 도움이 절실한 곳도 있고, 더러는 장애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익을 취하는 곳도 있지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돕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선정하기 위해 무려 2년 동안이나 계획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오뚜기의 기부는 신중하고 의미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절대로 즉각적이거나 기분에 따른 기부가 아니었어요. 한두 번 하고 그치는 기부도 아니고요. 저희 한국심장재단에 무려 30년 동안이나 지속적인 기부를 해온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뚜기는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 관심과 후원을 전폭적으로 갖고 있는 거군요.

저를 만났을 즈음에 지속적으로 기부할 장애인 기관을 선정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때 들려주신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장애인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일을 주어 그들의 자활을 직접 도와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뚜기에서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 쓸 선물세트를 많이 판매하잖습니까. 일반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선물을 하기도 하고, 이웃들이 서로 선물하는 데도 쓰이죠. 그 오뚜기 선물세트를 만드는 일을 장애인들이 하는 겁니다.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자활인데, 오뚜기가 바로 그런 일거리를 주는 것이지요. 또 장애인이 일한다고 해서 특별히 봐주는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장애인이 1시간에 10세트를 만드는데, 장애인은 5세트를 만든다 치면, 일한 만큼만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들을 특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한다는 뜻깊은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만큼 함태호 명예회장님의 기부 철학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함태호 명예회장님의 기부 철학이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다른 일화로 생각나는 건 또 무엇일까요?

두 번째 만남에서는 참기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시중에 가짜 참기름이 참 많아서 소비자들이 속는 경우가 많았죠. 사실 참기름은 우리 식탁에서 얼마나 많이 쓰는 재료입니까. 오뚜기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했더니 정말 가짜 참기름이 많더래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좋은 진짜 참기름을 공급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참기름 판매를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소비자들은 환영하는데, 이번에는 참기름을 파는 영세 상인들의 항의가 있더랍니다. 오뚜기의 고민이 깊

2011년, 3000번째 새 새명을 얻은 최경훈 군(당시 11세)과 함께한 함태호 명예회장과 조범구 前 한국심장재단 이사장.

한국심장재단이 1992년부터 오뚜기와 인연을 맺은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함태호 명예회장님, 함영준 회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뚜기와 10개 관계사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심장재단에 약 120억 원을 기부해 5,749명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30년 전에 심장병 수술을 받은 어린이는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뚜기의 기부 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한국심장재단의 모든 후원자들과 함께
오뚜기의 기부 정신에 경의를 보냅니다.
30년의 꾸준한 기부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 기부 정신을 더욱 되살려 이 시대의 모든 기업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귀감이 되어주시길 기원합니다.

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함태호 명예회장님은 한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은 "참기름 광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진짜로 제일 좋은 것을 광고하지 않고 판매하겠다는 함태호 명예회장님의 생각이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장애인 단체를 돕는 방식이나 영세 상인을 살리는 기업윤리, 그 두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함태호 명예회장님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함태호 명예회장님께서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과 만날 기회가 종종 있으셨나요? 기부자와 어린이들의 만남은 어땠나요?

오뚜기가 살린 1000번째, 2000번째, 3000번째, 4000번째 어린이들을 만나는 행사가 열렸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어린이들을 바라보던 함태호 명예회장님의 표정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술을 받고 학교에 잘 다니는 아이들을 만나면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건강해진 모습으로 점점 더 잘 자라가는 아이들을 볼 때 정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중요한 행사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열리니까 아이들은 훌쩍 자랐죠. 건강하게 성장한 아이들을 보시고는 참 좋아하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히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래도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에 대한 지원은 계속 필요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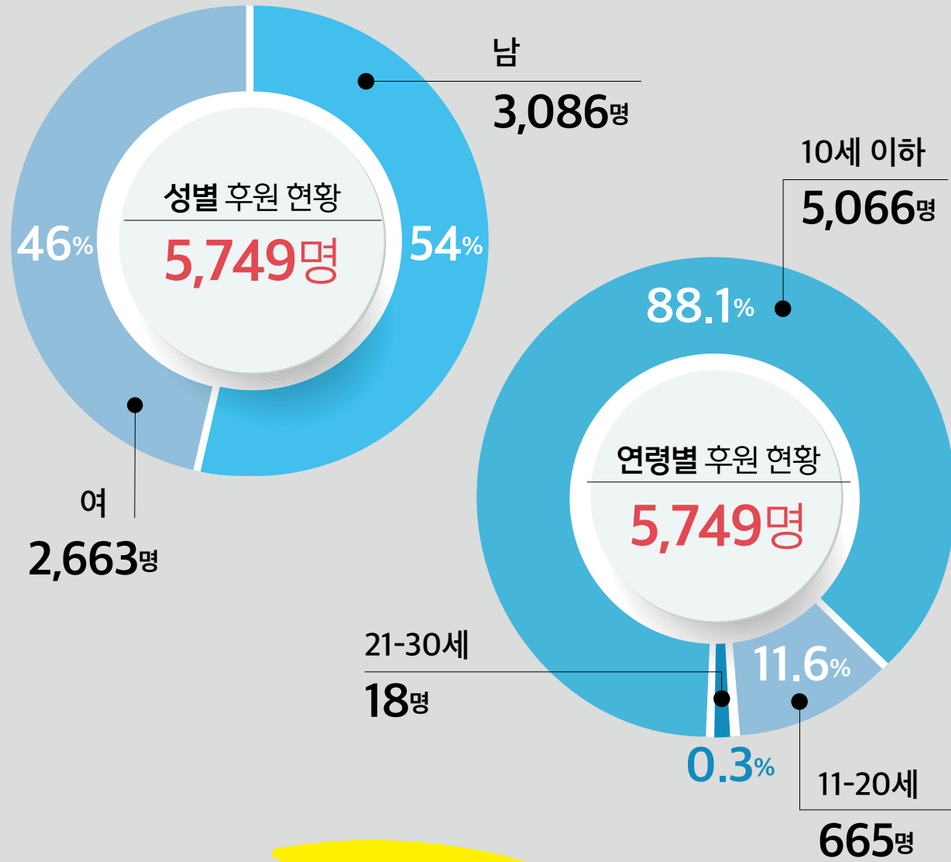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10명 중 9명은 수술을 받으면 다 좋아집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심장병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이제 막 결혼 생활을 시작한 젊은 부부는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잖아요. 아이가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으면 맞벌이 하는 젊은 부부들은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때 그 아이를 돕는 것은 한 가정을 살리는 것과 같아요. 젊은 부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오뚜기가 계속해서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를 위해 기부하는 것은 그런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태호 명예회장님은 "어린이가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셨어요. 어린 생명을 살리는 것이 곧 아이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오뚜기는 어린이를 정말 사랑하는 기업이잖습니까. 창립기념일도 5월 5일이고, 오뚜기 마크도 엄마가 해준 음식을 먹고 기분 좋게 웃는 어린이 얼굴이고요.

앞으로 오뚜기와 한국심장재단의 관계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나요?

종종 일부 사회복지기관에서 기부금을 유용한 사례가 보도되면서 기부문화가 위축되는 것은 몹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부금 사용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관의 신뢰와 직결되지요. 기부하는 분들은 자신이 낸 기부금이 정말 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한국심장재단은 후원금의 100%를 심장병 환자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심장재단이 후원자들로부터 40년 동안 신뢰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오뚜기를 갓뚜기로 부른다지요? 정말 소비자들이 얼마나 오뚜기를 좋아하고 신뢰하면 그런 별명을 얻었겠습니까? 기부하는 기업도, 기부받는 기관도 모두 신뢰받는다는 점에서 오뚜기와 한국심장재단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오래도록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뚜기 및 관계사는
1992년부터 2022년까지
30년 동안
한국심장재단을 통해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를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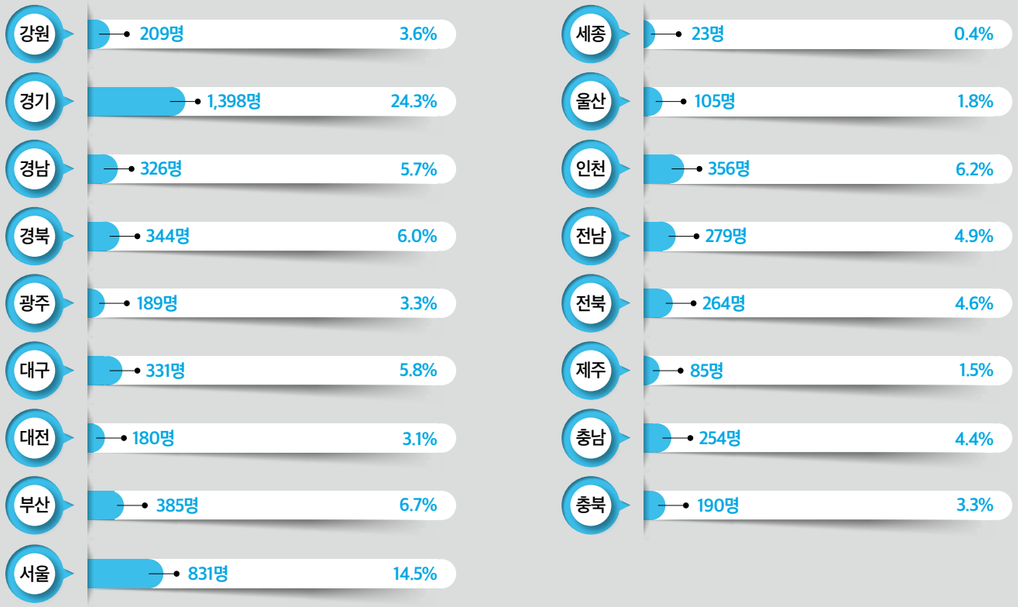
각 페이지의 아래쪽에 실린 글은 오뚜기 창업주 豊林 함태호 명예회장의 평전 <나무, 숲이 되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사회공헌사업은
공정한 절차를 밟아 대상을 선정하고,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기부는 가장 절박한 사람들에게 지원되어야 한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가치 있게 써야 한다.”
_ 함태호 명예회장

지역별 후원 현황

가나다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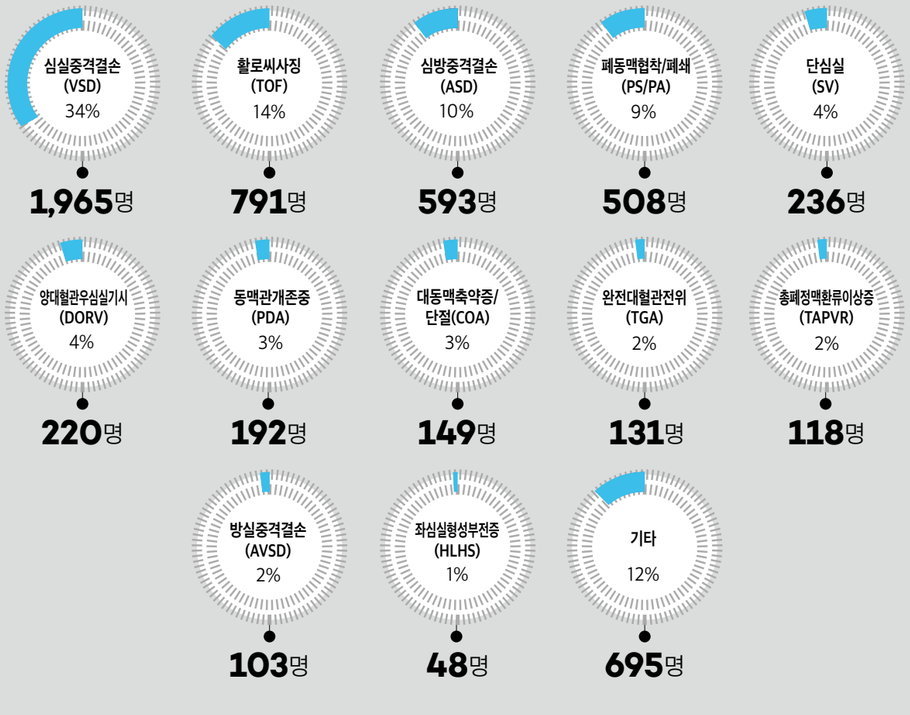


계 **5,749**명

1969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세상에 나온 **오뚜기 심벌마크,**
그 안의 오뚜기는 항상 웃고 있다.
건강한 어린이가 입맛을 다시는 모습은
참 행복하기만 하다.
(60p.)

병명별 후원 현황

인원 순



1969년, 함태호 회장은 창업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신조를 사무실 벽에 내걸었다.
“머리 쓰고 땀 흘리자.”
그리고 후일 오뚜기 철학의 기반이 된 사시(社是)를 제정했다.
“보다 좋은 품질, 보다 높은 영양, 보다 앞선 식품으로
인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한다.”
(39p.)

병원별 후원 현황

가나다 순

병원	인원(명)
가천의대길	86
강남세브란스	3
강동성심	4
강릉아산	7
강북삼성	2
건국대	67
경북대	407
경상대	22
경희대	9
계명대	47
고대구로	24
고대안산	24
고대안암	13
고신대	11
국립중앙	2
단국대	11
대구가톨릭	11
대전을지	5
동아대	121
메리놀	7
보훈	1

병원	인원(명)
부산대	150
부산백	73
부산침례	7
부천세종	865
분당서울대	20
분당차	8
삼성서울	566
삼성창원	6
삼육서울	5
상계백	7
서울대	707
서울백	36
서울성모	20
서울아산	1,174
성가롤로	1
성바오로	2
성빈센트	2
아주대	59
양산부산대	253
여의도성모	2
연세대	388

병원	인원(명)
영남대	28
울산대	2
원광대	27
원주기독	15
이대목동	19
이화대	13
인천성모	1
인하대	10
일산백	6
전남대	184
전북대	59
제주한라	4
조선대	4
중앙대	1
천안순천향	9
충남대	84
충북대	13
한림성심	6
한양대	29
계	5,749명

‘맛있고 영양가 있는 품질 좋은 음식’을
만드는 일은 함태호 회장의 가장 귀한 소명이 되었다.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일인 까닭이었다.
(78p.)

관계사별 후원 현황

후원 시작 연도 순

관계사	후원 시작	후원금액(원)	인원(명)
(주)오뚜기	1992년 7월	5,757,250,000	2,902
오뚜기라면(주)	1994년 12월	1,201,500,000	605
오뚜기제유(주)	1995년 4월	642,000,000	330
상미식품(주)	1995년 12월	1,033,500,000	493
(주)풍림피앤피	2000년 3월	681,000,000	356
오뚜기물류서비스(주)	2001년 6월	526,500,000	253
알디에스(주)	2008년 7월	403,500,000	171
(주)에드리치	2008년 7월	402,000,000	168
오뚜기냉동식품(주)	2009년 1월	394,500,000	165
오뚜기에스에프(주)	2009년 1월	394,500,000	165
(주)조흥	2011년 1월	346,500,000	141
계		11,782,750,000	5,749

일반적으로 기업이 기부금을 낼 때면
회사 수익금에 비례해서 기부를 한다.
그런데 **함태호 회장은 순이익금이 아닌,**
각 계열사의 매출액에 비례해서 기부하도록
계약서를 썼다.
(229p.)

With HOPE

오뚜기의 사랑으로
새 생명 탄생의 역사

1992년 7월, 함태호 명예회장님의 뜻에 따라
오뚜기는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오뚜기가 심은 그 사랑의 씨앗은
지난 30년간 무럭무럭 자라
커다란 나눔의 나무가 되었고,
5,749명의 새 생명 탄생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뚜기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의
행복한 그 얼굴을 다시 만나봅니다.

1992~2022

오뚜기의 사랑으로 새 생명 1,000명 탄생 _ 2001년 10월 18일

1000

입술이 파래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요

오뚜기가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의 치료비를 후원한
1992년으로부터 딱 10번째 되던 해인 2001년,
오뚜기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어린이가 1,000명을 넘어섰다.
오뚜기는 새 생명 1,000명 탄생을 기념해 2001년 10월 18일,
오뚜기 대풍공장에 완치 어린이와 가족들을 초청해 기념행사를 열었다.

함태호 회장으로부터 축하 선물을 받고 있는 하버들 양.

건강을 되찾은 아이들에게 축하와 기쁨을 전한 함태호 회장의 기념사.

후원환자 안선옥 양이 1,000마리의 학을 접어 선물한 목걸이를 건 함태호 회장.

1,000번째 새 생명, 하버들 양

1994년생으로, 2001년 심장수술을 받았다. 워낙 어릴 때라 아팠던 시절이 기억에 별로 없지만, 조금만 뛸라치면 입술이 파래졌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자신의 병을 어렴풋이 느끼곤 했다고. 심장수술 후 눈에 띄게 건강이 좋아진 하버들 양은 2010년 평범한 여고생으로서의 일상을 들려주며 다시 한번 오뚜기에 감사 인사를 전한 바 있다.

"지금은 체육시간에도 끄떡없어요. 물론 다른 친구들처럼 100%의 체력은 아니지만 몸 움직이는 걸 무척 좋아하거든요. 이젠 더 이상 입술이 파래지는 일은 없죠. … 스무 살이 되면 수술을 한 번 더 받아야 한다지만,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때보다 더 튼튼해졌으니까요."

_2010년 사보 <오뚜기> 인터뷰 중.

오뚜기의 사랑으로 새 생명 2,000명 탄생 _ 2007년 5월 18일

2000

두 번의 수술 후 이젠 맘껏 뛰어놀아요

오뚜기의 사랑으로 새 생명 2,000명 탄생 기념행사는 2007년 5월 18일, 충북 음성 오뚜기 대풍공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함태호 회장의 기념사와 어린이 대표 노해미 양의 감사 인사, 케이크 커팅은 물론, 건강을 되찾은 어린이들의 장기자랑,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 푸른 하늘 아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박춘거 한국심장재단 이사장이 꾸준한 사랑으로 심장병 어린이를 살린 오뚜기 함태호 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모든 심장병 어린이들이 건강을 회복하길 기원하며, 모두 다 함께 하늘로 종이비행기를!

2,000번째 새 생명, 전예진 어린이

2002년생. 예진이는 당시 여섯 살의 어린 나이로 두 번째 심장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 후 친구들과 맘껏 뛰어놀 수 있어서 너무 신난다며 아이다운 천진한 소감을 들려주었다.

"친구들과
맘껏 뛰어놀 수 있어서
너무 신나요."

함태호 회장의 품에 안긴 귀여운 예진이.

케이크 커팅. 맨 왼쪽부터 1,000번째 새 생명 하버들 양과 2,000번째 새 생명 전예진 어린이, 함태호 회장, 한국심장재단 박춘거 이사장.

방송 인터뷰 중인 함태호 회장.

예진이는 4년 후, 2011년 오뚜기의 사랑으로 새 생명 3,000명 탄생 행사에 참여해 함태호 명예회장, 한국심장재단 임원진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예쁘게 올라온 볼살이 아이의 건강을 보여주는 듯하다.

오뚜기의 사랑으로 새 생명 3,000명 탄생 _ 2011년 10월 18일

3000
소중한 늦둥이를 살려준 귀한 도움

오뚜기의 사랑으로 새 생명 3,000명 탄생 기념행사는 2011년 10월 18일, 오뚜기센터에서 진행됐다. 2,000명 탄생을 축하한 지 4년 5개월 만에 달성한 기쁜 소식이자, 오뚜기가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사랑의 나눔을 시작한 지 19년 만의 일이다. 이날 행사에는 심장병 완치 어린이와 가족, 한국심장재단 관계자, 오뚜기 및 관계사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해 새 생명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오뚜기 및 관계사 대표들에게 꽃다발을 전한 완치 어린이들.

함태호 명예회장과 오뚜기의 3,000번째 수혜자 최경훈 어린이(앞줄 왼쪽), 할머니가 직접 뜬 목도리를 함태호 명예회장에게 선물한 한재균 어린이.

아이들은 키자니아에서 오뚜기 라면공장 체험을 하며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수술 두 달 만에 건강해진 모습으로 기념행사에 참석한 경훈이.

3,000번째 새 생명, 최경훈 어린이

2001년생 경훈이는 엄마가 마흔하나에 얻은 귀한 늦둥이다. 태어난 지 3일 만에 팔로4징후를 진단받았고, 첫돌 때 1차 수술을 받았다. 이후 판막이 없는 상태로 계속 추적 관찰을 받던 경훈이는 초등학교 입학 후 유독 힘들어하다가 결국 2011년 2월 정기검진에서 심장이 너무나 커져 있고 폐동맥에서 혈액 역류가 심해 빨리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경훈이 엄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심장재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훈이는 (주)오뚜기의 수술비 지원을 받아 그해 9월 무사히 심장수술을 마쳤다.

경훈 군의 최근 모습. 대학교에 다니며 건강하고 평범하게, 부지런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2차 수술을 받기 전까지는 조금만 뛰거나 계단을 오르기만 해도 숨이 찼습니다. 할 수 있는 운동은 폐활량 증진을 위한 수영뿐, 다른 운동은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뛰어놀지 못하고 혼자 앉아 외로운 체육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2차 수술을 잘 마치고 학교로 돌아갔던 날, 반 친구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줬던 기억이 납니다. 건강한 삶을 얻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일이었지요. 새 삶을 선물해주신 한국심장재단과 오뚜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장병 환자에게 수술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기회입니다. 두 기관의 환자 후원이 계속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_ 최경훈 군이 보내주신 감사의 글.

오뚜기의 사랑으로 새 생명 4,000명 탄생 _ 2015년 11월 24일

4000

아이의 건강을 선물해준 오뚜기는 온 가족의 선물

2015년 11월 24일, 평소 조용하던 오뚜기센터가 설렘의 기운으로 들썩이기 시작했다. 오뚜기의 사랑으로 새 생명 4,000명 탄생 기념행사가 진행된 것. 함영준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3주간 전국 지점을 순회하다가 한국심장재단의 지원으로 자녀가 수술을 받은 오뚜기 직원을 만나 큰 기쁨을 느꼈다”면서 “세상 모든 아이가 심장병으로 고통받지 않는 그날까지 오뚜기는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다.

오뚜기의 후원으로 수술받고 퇴원한 이가은 양의 축하 공연.

선물을 받고 활짝 웃는 아이들.

나라의 희망이자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어린이들.

특별했던 하루를 추억으로 남기며 모두 함께.

중욱이와
엄마 강선화 씨,
함태호 명예회장.

4,000번째 새 생명, 박중욱 어린이

**엄마 배 속에서 심장 이상을 진단받은 중욱이는
2011년 태어나자마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
생후 3주 만에 첫 번째 심장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2015년 10월 오뚜기의 4,000번째 후원환자로
두 번째 심장수술을 받았다.**

의사 선생님의 따듯한 격려를 믿고

임신 5개월 무렵, 정밀 초음파검사를 통해 아기의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큰 병원에 가보라는 동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서둘러 서울대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지요.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님은 아기가 태어나 수술받으면 건강해질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따듯한 격려에 힘입어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산부인과와 소아흉부외과 진료를 받으며 차근차근 출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약 3주 정도 지나 첫 번째 심장수술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수술을 앞두고

2015년 10월. 중욱이의 두 번째 심장수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당시 아이 아빠가 다니던 회사를 나와 창업을 하고 자리를 잡고 있던 중이어서 아이의 수술을 앞두고 근심이 많았습니다. 이것저것 방법을 찾아보던 중 인터넷을 통해 한국심장재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후원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후원이 가능할지 조심스레 문의드렸는데, 중욱이의 수술비를 후원해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위험한 수술을 잘 이겨내고

중욱이에게 예정된 두 번째 수술은 인공혈관 교체술과 판막성형술 등 워낙 크고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다섯 살의 어린 중욱이가 두 번째 수술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염려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훌륭하신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흉부외과 김웅한 교수님과 의료진 선생님들을 믿고 수술을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심장재단에서도 중욱이의 수술을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중욱이가 수술 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중욱이의 건강 회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밝고 쾌활한 예전의 중욱이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기뻤습니다. 앞으로 몇 번의 심장수술이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중욱이는 이 또한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중욱이를 걱정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분들, 특히 한국심장재단과 주식회사 오뚜기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태호 명예회장으로부터
순금 오뚜기 기념 목걸이를
받고 있는 중욱이.

오뚜기는 선물 같은 존재

오뚜기의 후원이 중욱이에게 밝고 건강한 삶을 선물해주셨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뚜기는 저희 가족에게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쇼핑을 하거나 마트에 갈 때면 항상 오뚜기 제품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저희 가족에게 선물을 준 오뚜기를 항상 곁에 두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오뚜기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받은 사랑 나누며 살겠습니다

중욱이의 수술을 앞두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던 저희 가족에게 한국심장재단과 오뚜기의 후원은 정말 큰 힘이 되었고, 안심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흔한 단어 말고는 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 아쉬울 따름입니다. 한국심장재단과 오뚜기는 저희 가족에게 기부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나눔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가르쳐주셨습니다. 저희가 받은 후원 항상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게나마 중욱이 이름으로 하고 있는 한국심장재단 정기후원을 끝까지 이어나가겠습니다.

_ 중욱이 엄마 강선화 님이 보내주신 감사의 글.

오뚜기의 사랑으로 새 생명 5,000명 탄생 _ 2019년 10월 18일

5000

숫자 ‘5’에 담긴 특별한 인연, 평생의 행운이자 행복

함영준 회장의 기념사.

“함태호 명예회장님의 뜻으로 1992년 시작된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후원사업으로 금년(2019년) 4월 5,000명의 새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 5,000명의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오뚜기의 사랑으로 새 생명 5,000명 탄생 기념행사는 2019년 10월 18일, 오뚜기센터 풍림홀에서 함영준 회장의 뜻깊은 기념사로 시작했다. 이후 한국심장재단 조범구 이사장의 축사와 퇴원가족의 감사 인사, 축하 퍼포먼스, 키자니아 오뚜기 공장 체험 등으로 서로 축하와 기쁨을 나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오뚜기 퇴직임원 모임인 ‘오뚜기 수요회’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해 더욱 뜻깊었다.

축하 퍼포먼스를 보는 모든 이의 얼굴에 함박웃음이 가득.

퇴직 임직원들의 뜻깊은 기부.

5,000번째 새 생명 김채아 어린이와 엄마 전바램 씨.

오뚜기 함영준 회장과
채아네 가족.

5,000번째 새 생명, 김채아 어린이

2016년 태어난 채아는 네 살 때 영유아검진에서 심잡음이 들린다는 의사의 소견을 통해 처음 심장 이상을 알게 되었고, 심방중격결손을 진단받았다. 결손 크기가 커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힘들어하던 채아 엄마 아빠는 한국심장재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채아는 오뚜기의 5,000번째 후원환자로 2019년 6월 25일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완치 어린이와
가족을 대표해
감사 편지를 낭독한
채아 아빠.

청천벽력 같은 소식, 오진이길 기도했던 심정

채아는 2019년 6월 25일, 심장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살의 어린 나이에 힘든 수술을 잘 견뎌준 기특한 딸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제 눈앞에 있음이 새삼 감사한 하루입니다.

채아의 심장 이상을 알게 된 건 그해 5월 초. 영유아검진을 위해 동네 소아과를 방문했다가 채아의 심장에서 이상한 잡음이 들리는 것 같으니 큰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왠지 찜찜한 마음에 인근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봤어요. 병명은 심방중격결손. 결손 크기가 20mm 이상으로 너무 커서 꼭 수술을 받아야만 한다고 하더군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아이의 수술을 준비하며 알게 된 한국심장재단

머리가 하얘지고, 너무 슬프고, 이 상황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아마 그 순간만큼은 전 세계 모든 부모 마음이 동일할 거라 감히 생각합니다. 혹시나 오진이 아닐까 싶어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 냉정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힘들어하는 아내와 아픈 딸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남편이자 아빠인 제가 중심을 잘 잡아야겠다 마음먹었지요. 열심히 인터넷을 검색하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심장수술과 관련된 여러 글을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먼저 딸아이의 수술을 경험한 선배 부모이자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조언자가 되어준 어느 부모님이 한국심장재단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친숙했던 오뚜기의 놀라운 선행

그렇게 심장병 아이들의 든든한 의지처인 한국심장재단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심장재단의 가장 큰 후원자가 우리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너무나 친숙하고 잘 알던 오뚜기라는 것 또한 그때 알게 되었지요.

한국심장재단으로부터 수술비 후원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채아의 병을 알게 된 뒤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기뻐서 웃었던 게 기억납니다. 금전적인 고민의 해결점을 찾은 덕분에 저희 부부는 온전히 아이 돌보는 일에만 마음을 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비 후원으로 채아의 건강과 행복한 가정을 다시 선물해주신 오뚜기와 한국심장재단에 진심을 다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숫자 '5'에 담긴 오뚜기와의 특별한 인연

그리고 그해 가을, 오뚜기의 사랑으로 새 생명 5,000명 탄생 기념행사에 초대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채아가 오뚜기의 5,000번째 후원환자였다니, 이 신기한 인연이 믿어지질 않더군요. 사실 오뚜기의 창립기념일인 5월 5일은 채아의 생일이랍니다. 오뚜기와 같은 날 태어난 채아가 오뚜기의 창립 50주년에 오뚜기의 5,000번째 후원환자가 되어 수술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이지요. 오뚜기 덕분에 채아에게는 숫자 '5'가 평생토록 행운이자 행복의 숫자일 것 같습니다.

비 온 뒤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채아의 건강을 찾게 된 기쁨은 어떤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저 모든 분들과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에 감사함을 느끼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여나 아이의 심장수술을 앞두신 부모님들에게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아이보다 부모님이 더 잘 견뎌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일 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마음을 다 읽고 느끼니까 엄마 아빠가 흔들리지 않고 아이에게 좋은 기운을 선물해줘야 아이도 더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는 얘기를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행복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_ 채아 아빠 김원진 님이 보내주신 감사의 글.

With FRIENDSHIP

한국심장재단의 든든한 친구, 오뚜기와 함께!

오뚜기는 한국심장재단과 함께
심장병 어린이들의 생명 살리기뿐만 아니라,
마음 살리기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심장병 어린이와 가족들을 초청해
오뚜기의 생산 현장을 돌아보고, 행복한 요리 축제에 초대하고,
함께 걷고 달리고 웃으며 즐거운 추억을 듬뿍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심장병 어린이들을 각별히 아껴주신 오뚜기와
함태호 명예회장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갑니다.

에디터 이나경 사진 한국심장재단사업팀

스위트홈 **오뚜기 가족요리 페스티발**
요리와 함께한 행복한 오뚜기 세상 GO GO GO

오뚜기 **대풍공장 견학**
어린이의 꿈 키워주는 새롭고 다양한 체험의 장

심장병 예방 **'한 걸음 더' 걷기대회**
오뚜기, 한국심장재단과 함께 심장 지킴이로 변신!

함태호 명예회장님과 함께한 추억
심장병 어린이를 유달리 사랑했던 따듯한 어른을 기리며

스위트홈 오뚜기 가족요리 페스티발

요리와 함께한 행복한 오뚜기 세상 GO GO GO

스위트홈 오뚜기 가족요리 페스티발은 요리라는 경험을 통해 가정의 화목과 밝은 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로 1996년 시작한 요리 경연대회로, 매해 5월 가정의달에 개최되고 있다. 참가 가족들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요리경연과 함께 채식요리교실, 어린이 공예교실, 오뚜기 신제품 체험코너 등 매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재미를 더하고 있다. (주)오뚜기는 1999년부터 스위트홈 오뚜기 가족요리 페스티발에 심장병 퇴원환자와 가족들을 초청하고 있으며, 본선 진출팀의 참가비 전액에 오뚜기에서 같은 금액의 후원금을 더해 한국심장재단에 기부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행사가 중단되었다가,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지난 5월 3년 만에 행사가 재개됐다. 감염병의 여파로 행사 규모는 다른 때보다 축소됐지만, 현장의 열기와 감동은 오히려 더 뜨거웠다는 후문.

2011년

1998년

2006년

2007년

2010년

2011년

2011년

2011년

2016년

2016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8년

2019년

2019년

2019년

2022년

2022년

2022년

오뚜기 대풍공장 견학

어린이의 꿈 키워주는 새롭고 다양한 체험의 장

매년 5월이면 스위트홈 오뚜기 가족요리 페스티발로 심장병 환자와 가족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물하고 있는 오뚜기. 10월에는 심장병 완치 어린이와 가족을 충북 음성의 오뚜기 대풍공장에 초청한다. 홍보관 견학, 신제품 시식, 오뚜기 제품 생산 과정 둘러보기 등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아이들의 세계와 꿈은 좀 더 넓어진다. 2012년 대풍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시작한 오뚜기는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이 특별한 사랑을 실천할 계획이다. 수술비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갓뚜기'의 선한 발걸음에 큰 박수와 응원을 보낸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더 많은 심장병 아이들이 오뚜기에서 더 많은 추억을 누리기를 기원한다.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2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6년

2016년

2016년

2018년

심장병 예방 ‘한 걸음 더’ 걷기대회

오뚜기, 한국심장재단과 함께 심장 지킴이로 변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등 심장 지킴이 한국심장재단은 심장병 예방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심장병 환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매해 가을, 심장병 예방 한 걸음 더 걷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자연 속에서 가족이 함께 걸으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축제의 장이다. 5km 걷기, 심장질환 인식 개선 캠페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축하공연, 모금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걷기대회에 오뚜기 또한 자원봉사와 물품후원, 오뚜기 부스 운영으로 손을 보태고 있다.

2012년

2016년

2016년

2017년

2017년

2018년

2018년

2019년

2022년

2019년

2019년

2022년

2019년

2022년

함태호 명예회장님과 함께한 추억

심장병 어린이를 유달리 사랑했던 따듯한 어른을 기리며

2017년 9월 12일, 오뚜기센터 풍림홀에서 오뚜기 창업자인 함태호 명예회장 1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추모식은 가족과 오뚜기 전현직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치러졌으며, 고인의 큰 사랑을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국심장재단도 함께하고 추모집을 헌정했다.
한국심장재단 조범구 이사장은 “생전에 함태호 명예회장님의 사회공헌에 대한 신념과 그분께서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베풀었던 한결같은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고인의 숭고하고 깊은 베품과 나눔의 뜻을 기리며 한국심장재단은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인을 추모했다.

함태호 명예회장
장례식장에 참석한
심장병 완치 어린이들.

함영준 오뚜기 회장은
추모사에서 “최근 회사가 사회적으로
유명해졌는데, 아마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업이 되자’고 늘 말씀하셨던 것이
나타나는 것 같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도 무한으로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인을 기리며,
오뚜기 함영준 회장과
한국심장재단
조범구 이사장.

2007년
오뚜기의 사랑으로
2,000번째 새 생명 탄생
기념행사에서.

어떤 식으로 어린이들을 위할 것인지
많이 궁리했어요.
고아원도 생각해봤고…. 그런데
선천성 심장병을 앓는 어린이들은
일정 기간 안에 수술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고 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으며,
돈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절박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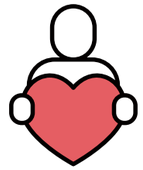
_ 심장병 어린이 후원 계기를 엿볼 수 있는
고인의 인터뷰 중에서. <심장소식> 1996년 겨울호.

오뚜기의 후원으로
수술을 받고 건강하게 자란
백승진 씨.

2011년 오뚜기의 사랑으로
새 생명 3,000번째 탄생 행사에서
수혜자 최경훈 군과 함태호 명예회장.
함태호 명예회장은 평소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길 꺼렸지만, 후원환자와 가족의
편지에는 꼬박꼬박 답장을 보냈다.
2016년 고인의 빈소에 유독 어린이와
청소년 문상객이 많았던 이유도
오랜 나눔의 인연 덕분이었다. 당시
열여섯 살의 경훈 군도 고인의 빈소에
찾아와 직접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

“감사합니다 & 사랑합니다”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은
처음 만난 세상에서 수술을 받으며 어린 삶을 시작했고,
안타까운 눈물 속에 절박한 기도를 드리던 부모님들은
그래도 희망의 빛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뚜기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심장재단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오뚜기와 한국심장재단에 보내온 감사 편지들입니다.



오뚜기와 10개 관계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를 도왔습니다

관계사	후원환자	후원금액	후원 시작
(주)오뚜기	2,902명	5,757,250,000원	1992년 7월
오뚜기라면(주)	605명	1,201,500,000원	1994년 12월
오뚜기제유(주)	330명	642,000,000원	1995년 4월
상미식품(주)	493명	1,033,500,000원	1995년 12월
(주)풍림피앤피	356명	681,000,000원	2000년 3월
오뚜기물류서비스(주)	253명	526,500,000원	2001년 6월
알디에스(주)	171명	403,500,000원	2008년 7월
(주)에드리치	168명	402,000,000원	2008년 7월
오뚜기냉동식품(주)	165명	394,500,000원	2009년 1월
오뚜기에스에프(주)	165명	394,500,000원	2009년 1월
(주)조흥	141명	346,500,000원	2011년 1월

후원환자 **5,749**명 기부금 **11,782,750,000**원

감사합니다 & 사랑합니다

(주)오뚜기

1992년 7월 후원 시작 ♥ 2,902명 후원

문채아

보라색 발이 붉은색이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채아는 수술한 지 2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몸이 약한 상태에서 코로나19까지 확진되다 보니 한동안 걱정을 놓을 수 없었고, 정신없는 날들이었습니다. 기특하게도 채아는 병원생활을 했던 두 달의 간극을 좁히려는지 열심히, 아주 잘 자라주고 있답니다. 1차 수술 전까지 아이의 산소포화도 수치는 낮을 때는 50%, 조금 올라가야 80%를 유지했는데, 지금은 수치를 재는 게 의미 없을 정도로 100% 가깝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청색증을 보이며 미약하게 보라색이었던 발이 아주 예쁘게 불그스름해져서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답니다.

건강한 몸으로 300일을 맞이하고, 또 돌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떠한 말로도 다 갚을 수 없음을 알지만, 감사드린다는 말밖에 전할 수 없음을 너무 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어 행하지 못하지만, 채아가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채아의 아빠, 엄마, 큰아이까지 한국심장재단과 주식회사 오뚜기의 도움에 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2022년 7월 7일 건강한 삶을 찾은 문채아(1세)의 아빠 문대연 님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서유안

한국심장재단의 존재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유안이가 일반적인 심장병이 아니라 복잡한 심장구조를 가지고 있고, 수술도 몇 번이나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막막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하면서도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현실적인 걱정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때 병원 사회복지사님을 통해 한국심장재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아파 수술이 필요한 아이들을 지원해주는 곳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고, 심사를 통해 한국심장재단 지원이 결정되었다는 걸 알았을 땐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유안이는 노우드 수술 후 지금은 집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날마다 24시간 산소포화도와 심박수 측정기를 달고 있었지만, 차츰 좋아져서 낮에 컨디션 좋을 때는 20분 정도만 측정하고 밤에만 측정기를 달고 있습니다.

유안이는 생후 6개월쯤 또 한 번의 수술을 받아야 하고, 세 살이 되면 폰탄이라는 수술까지 두 번의 큰 수술이 남은 상태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어렵지만,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보살피고 기르겠습니다.

한국심장재단 관계자분들과 오뚜기 임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잡 심장병으로 수술받은 서유안(1세)의 보호자가 보내주신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랑합니다

(주)오뚜기

1992년 **7**월 후원 시작 ♥ **2,902**명 후원

이승아

많은 이들의 사랑과 응원으로 태어나고 살아난 아이

폐동맥 확장 시술 후 승아는 폐동맥판이 다시 막힐 가능성이 있고, 심장외벽이 부어서 또 다른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산소포화도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중환자실에서는 너무 작아 3kg도 넘지 않았던 아이는 쑥쑥 자라서 어느새 5kg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첫아이라 모든 것이 서툰 저희에게 승아의 폐동맥판 폐쇄 진단은 혼란이었습니다. 아이 상태가 매우 위급하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은 이후에는 정신을 차리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힘들었고, 치료비 걱정도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심장재단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치료비 지원은 물론이고, 담당자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수술비를 후원해주신 오뚜기 회장님과 모든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승아가 퇴원하는 날 아내와 다짐했습니다. 우리 승아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응원으로 태어나고 살아난 아이니까 감사하며 키우자고요. 앞으로 많은 날들, 이 다짐대로 감사하며 사랑으로 승아를 키우겠습니다.

***폐동맥판 폐쇄로 치료받은 이승아(1세)의 아빠 이구열 님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이초아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로 예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소아과에 독감주사를 맞으러 갔다가 우연찮게 아이의 심장에 잡음이 들린다는 소견을 듣고, 큰 병원에서 에브스타인 기형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손발이 차갑고 피부가 푸르스름했던 이유가 희귀 심장병 때문이란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이가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었기에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는구나 하면서 넘겼는데, 이렇게 큰 병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심장수술 치료비에 입원비 등등 걱정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보건소에 희귀난치병 지원 신청서도 제출했지만 오래전 이혼한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지원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려던 찰나, 지인들을 통해 한국심장재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심장재단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수술비 지원까지 모든 과정이 빠르게 진행됐고, 걱정과 달리 아이의 수술도 일찍 잘 끝났습니다. 첫날은 스스로 앉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전부 토했던 아이가 이튿날엔 살살 걸어 다니기 시작해 수술 후 4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수술 한 달 반 정도 지난 지금, 초아는 하고 싶은 단발머리도 하고, 강아지랑 매일 산책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기로 소문난 오뚜기로부터 수술비를 지원받았다는 소식에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오는구나 싶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국심장재단에 정기후원을 신청했습니다. 사회의 도움을 받아 건강을 되찾은 저희 아이, 예쁘게 잘 키워서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씩씩하고 똑똑한 아이로 보답하겠습니다.

***에브스타인 기형이라는 선천성 심장병으로 지난 2월 수술받은 이초아(10세)의 보호자가 보내주신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랑합니다

오뚜기라면(주)

1994년 12월 후원 시작 ♥ 605명 후원

노윤하

먹는 양이 늘어 안도의 웃음이 납니다

체중이 작게 태어나 분유를 조금밖에 못 먹던 아이, 숨을 늘 가쁘게 쉬었던 아이. 아이가 처음이었던 저희 부부는 아이의 이런 증상을 신생아라 빠는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심실중격결손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고, 결국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기를 수술실에 들여보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했던 상황에서 저희 부부에게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신 곳이 바로 한국심장재단입니다. 그 손길 덕분에 저희 아이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현재 추적 관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분유를 조금밖에 먹지 못했던 아이로 인한 안타까움은 이제 예전 일이 되었고, 숨을 가쁘게 쉬던 아이의 모습 또한 과거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하루하루 먹는 양을 갱신하는 아이 덕분에 안도의 웃음을 지으며, 아기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윤하의 수술비를 도와주신 오뚜기라면(주)도 잊지 않겠습니다. 나날이 건강해지고 있는 저희 아이 또한 한국심장재단과 주식회사 오뚜기의 따뜻한 마음을 본받아 사회에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심실중격결손으로 수술받은 노윤하(1세)의 보호자가 보내주신 글입니다.**

이지유

한 줄기 빛과 같았던 큰 도움

지유는 태어난 다음 날 청색증으로 대구의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심방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6개월에 한 번씩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대부분 시술을 통해 쉽게 막을 수 있다는 병원의 말을 믿었지만, 아이는 신생아 때부터 먹는 걸 힘들어했고 몸무게와 키 모두 또래보다 현저히 작았습니다. 성장이 너무 느렸고 심장 구멍도 점점 커져서 결국 시술이 아닌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자아이라 수술할 위치가 더욱 걱정이었는데, 구멍이 2개인데다 위치도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왜 내 아이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 건지 너무나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수술을 결정한 뒤 밤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또 검색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심장재단을 알게 되고 수술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한국심장재단 덕분에 병원비는 걱정하지 않고, 오롯이 내 아이의 수술과 회복에만 신경 쓸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두 달이 되어가는 지금, 지유는 유치원도 잘 다니고 있고, 몸무게도 1kg이나 늘었습니다. 누구보다 밝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수술과 이후 회복까지 그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오뚜기라면(주)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아이로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심방중격결손으로 수술받은 이지유(4세)의 보호자가 보내주신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랑합니다

오뚜기제유(주)

1995년 4월 후원 시작 ♥ 330명 후원

김민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결 엄마입니다. 후원자님이 저희 민결이를 도와주신 덕분에 민결이는 병원비와 수술비 걱정 없이 수술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하기 전부터 아이의 건강만큼이나 수술비 또한 큰 걱정거리였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어린 민결이가 건강하게 자라 엄마 아빠의 말뜻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고마운 분들께 귀한 도움을 받았다고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도 후원자님처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보고 싶습니다.

아직 한 차례의 수술이 더 남아 있지만, 민결이가 씩씩하게 이겨낼 거라 믿습니다.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발짝 도움을 주신 후원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민결(1세)의 보호자가 보내주신 글입니다.

상미식품(주)

1995년 12월 후원 시작 ♥ 493명 후원

오채이

청색증이 사라지고 잿빛 얼굴이 뽀애졌어요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태어난 우리 채이는 지난해 6월, 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비가 부담이던 그때, 후원자님의 도움 덕분에 수술 잘 받고 열심히 회복해 집에 오게 되어 항상 가슴 한편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차 수술인 BCPS(양방향성 상대정맥-폐동맥 문합술) 수술을 앞두고 저희는 다시 한번 한국심장재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하게 답해주신 한국심장재단 관계자분들, 감사했습니다.

상미식품 후원자님 덕분에 우리 채이는 또 한 번의 큰 수술을 잘 마치고 열심히 회복해 집에서 쑥쑥 성장하고 있습니다. 2차 수술 전엔 울기만 해도 산소포화도가 떨어져서 잿빛 얼굴이 되곤 했지만, 수술 후 채이는 얼굴이 뽀얘지고 청색증도 사라졌습니다.

후원자님 덕분에 저희 가족은 그 어느 해보다 몸도 마음도 더 따뜻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처럼 저희 부부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채이(1세)의 보호자가 보내주신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랑합니다

상미식품(주)

1995년 12월 후원 시작 ♥ 493명 후원

이아준

막막한 현실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해 5월 19일 아침 9시 32분,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산소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 생활을 하던 제 아이가 한국심장재단의 도움을 받고 우여곡절 끝에 제 품에 안겼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신 때부터 얼마가 될지도 모를 아기 병원비를 모으겠다고 먹고 싶은 것 굶어가며 임부복도 마련하지 못한 채 애태웠던 날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열심히 모았지만 수중에는 몇백만 원이 전부였고, 아이의 첫 번째 수술비를 내고 나면 당장 생활할 돈도 부족했던 터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심장재단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한국심장재단 지원이 안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치료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한 하루하루였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지원해주신 덕분에 아준이는 치료 잘 받고 퇴원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준이가 또 몇 번의 수술을 견뎌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한국심장재단의 도움으로 앞으로의 길을 좀 더 단단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아준이의 수술비를 상미식품에서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핑 돕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준이가 좀 더 크면 이 고마운 도움의 손길을 꼭 알려주겠습니다.

*이아준(1세)의 보호자가 보내주신 글입니다.

(주)풍림피앤피

2000년 3월 후원 시작 ♥ 356명 후원

민정우

마음 졸일 일 없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

작년 10월 심실중격결손으로 수술을 받은 정우는 한국심장재단의 후원 덕분에 힘든 수술을 씩씩하게 견디고 잘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99% 회복되었단 기쁜 소식입니다^^ 수술 후 집에서 지낸 한 달 동안 살도 2kg이나 쪘어요.

수술 직후에는 잘 웃지도 않고 잘 뛰지도 않아서 내심 걱정스러웠는데, 이젠 예전의 웃음과 깨발랄하고 명랑한 모습이 돌아왔어요! 유치원도 잘 다니고 있고요. 다만 수술 후 중환자실에 혼자 있었던 게 충격이었는지 한두 발짝 앞으로 걷다가도 뒤를 돌아보며 엄마가 있는지 확인해요. 자고 일어났을 때 엄마가 옆에 없으면 막 울고요.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한국심장재단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어린아이가 큰 수술을 받게 된 건 지금도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이젠 마음 졸이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예전엔 눈 밑에 다크써클만 생겨도 심장 탓이 아닌지 걱정스러웠고, 뛰어노는 아이를 보며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마음 잊지 않고, 정우를 바르고 마음이 너그러운 아이, 남을 도울 수 있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심실중격결손으로 수술받은 민정우(5세)의 보호자가 보내주신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랑합니다

오뚜기물류서비스(주)

2001년 6월 후원 시작 ♥ 253명 후원

이서진

아기의 뽀얘진 얼굴에 많이 울었습니다

서진이는 2.65kg으로 예정일보다 보름 일찍 태어났습니다. 다른 아기들에 비해 먹는 양이 적고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아빠 닮아 천천히 먹는 아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피부가 까만 것도 임신 중에 콜라를 많이 마셔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생후 9일 차에 심잡음 소리가 들린다는 진료 의뢰서를 받아 큰 병원에 갔고, 팔로4징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소포화도가 좋지 않아 그 자리에서 신생아중환자실로 입원시키게 되었지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먹는 양이나 시간, 피부색 모두 심장병 때문이라는 걸 뒤늦게 알고 며칠을 펑펑 울었습니다.

이후 수술을 위해 서울대 어린이병원으로 옮겼는데, 이동이 힘들었던 탓인지 소아집중치료실 입원 수속을 밟고 돌아오는 길에 산소포화도가 4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진이는 며칠 후 3.2kg의 작은 몸으로 급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아기의 얼굴색이 뽀얀 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기가 많이 어려 회복도 더뎠고, 2차 수술로 횡경막 고정술까지 받는 등 고비가 있었지만, 수술해주신 교수님과 소아집중치료실 의료진분들, 한국심장재단과 후원자님 덕분에 서진이는 생후 60일에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108일 차인 서진이는 아직 4kg도 안 되지만, 백일잔치도 잘 치렀고, 잠도 잘 자고 잘 놀고 웃으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후원자님들이 베푸신 마음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팔로4징후로 수술받은 이서진(1세)의 보호자가 보내주신 글입니다.

알디에스(주)

2008년 7월 후원 시작 ♥ 171명 후원

신정우

백일상을 준비하며 참 감사했습니다

정우는 심실중격결손, 심방중격결손, 동맥관개존증이라는 선천성 심장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심실중격결손의 크기가 컸고, 그 때문에 수유량 감소와 구토 증상이 심해져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친도 수십 년 전 심장판막의 기능이 떨어져 조직판막으로 판막치환술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워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모금 덕분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보았던 부모님의 선행은 후원자님들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판막치환술을 다시 받으셔야 했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이 사실을 숨기신 채 수술하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땐 그동안 효도하지 못한 제 자신, 그리고 후원과 도움을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것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기에 제 아들은 꼭 수술을 받고 밝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한국심장재단의 지원 덕분에 정우는 목소리도 커지고 자기 주장도 강해진 4개월 차 아기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 백일상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크고 있는 아들을 보며 참 감사했습니다. 후원자님들이 후회하시지 않도록, 예쁘고 밝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저희 아기를 후원해주신 분들처럼 저희 가족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심실중격결손, 심방중격결손, 동맥관개존증으로 수술받은 신정우(1세)의 보호자가 보내주신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랑합니다

(주)애드리치

2008년 7월 후원 시작 ♥ 168명 후원

이다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아기의 심장 이상 소견을 처음 들었을 땐 '왜 하필 우리 아기에게'라는 원망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속상했지만, 수술로 치료하면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위안을 얻기로 했습니다. 안사람은 눈물만 흘리고 있어서 저라도 마음 단단히 먹자고 생각하고 안사람을 달랬습니다.

심장수술 많이 해봤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주신 의사 선생님이 한국심장재단을 소개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신경도 못 쓰고 있었어요. 수술실에 들어간 아기가 제발 무사히 건강하게 나오기만 바랐지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너무나 기쁜 한편, 그제야 병원비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한국심장재단에서 지원해주고 모은 돈 보태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퇴원할 때 병원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한국심장재단에서 수술비 전액을 지원해주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조금 당황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요. 그래서 다시 확인하고 맞다는 대답을 들었어요.

퇴원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윤이 치료비를 도와준 곳이 애드리치라는 회사라는 것을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요. 한국심장재단과 그곳에서 선행을 하시는 분들, 수술비를 후원해주신 후원자님들, 우리 아기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고 또 감사해요.

*이다윤(1세)의 보호자가 보내주신 글입니다.

오뚜기냉동식품(주)

2009년 1월 후원 시작 ♥ 165명 후원

조우빈

가슴 아프게 했던 증상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저희 아기는 생후 1개월에 예방접종을 하러 소아과에 갔다가 심잡음 소견으로 대학병원에서 심실중격결손과 동맥관개존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왜 우리 아기에게 이런 병이 생겼는지 정말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기를 수술시키는 것이 너무 겁이 나서 바로 수술을 결심하지 못하고, 심장의 구멍이 자연적으로 막힐 거라는 희망으로 5개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분유를 잘 먹질 못하고 땀을 무척이나 많이 흘리는 모습에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마치 수술하러 가는 걸 아는 듯이 서럽게 우는 아기를 안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울면서 마취되는 아기의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수술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졌지만, 다행히 수술은 잘됐습니다. 열흘 만에 중환자실을 벗어나 병실에서 만난 아기는 수유할 때 더 이상 땀도 흘리지 않고 평소 먹던 양의 두 배 이상을 먹어 수술해주길 잘했단 생각을 했습니다. 수술 두 달이 되어가는 지금은 살도 많이 오르고 활발해졌으며, 무엇보다 제 가슴을 아프게 했던 증상들이 사라져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한국심장재단과 오뚜기냉동식품에서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아픈 아기를 안고 수술비 걱정까지 했을 겁니다. 아기의 건강과 회복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후원자님을 본받아 우리 아기가 누군가에게 꼭 도움이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고 바르게 키우겠습니다.

*지난 2월 심실중격결손과 동맥관개존증으로 수술받은 조우빈(2세)의 보호자가 보내주신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랑합니다

오뚜기에스에프(주)

2009년 1월 후원 시작 ♥ 165명 후원

우림

절박한 상황에서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입덧, 양수과소증, 조기 양막파수 등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그중 가장 저를 힘들게 한 건 아이의 선천성 심장병 진단이었어요. 16주 정밀검사 때 심실중격결손 진단을 받았고, 혹시나 싶어 다른 병원에 가서 봤을 때도, 낳자마자 확인한 결과도 같았습니다. 오진이기를 바랐는데…. 그래도 자라면서 구멍이 막힐 수도 있다는 말에 한시름 놓았다가, 아이의 심장이 무리가 가서 늘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네요.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 미안하고, 수술로 인한 아픔을 나누지 못해 속상하고 슬펐죠.

이렇게 부모가 되는구나 느낄 무렵, 수술비가 걱정됐어요. 전 임신 초기부터 다양한 이벤트로 그 흔한 태아보험도 가입이 거절되고, 출산 후에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또 한 번 보험이 거절된 상태라, 막연하게 수술비는 얼마나 들지를 걱정하게 되더군요. 아픈 아이를 두고 돈 걱정을 하는 제가 속물 같기도 했지만, 안타까운 마음만으로 아이를 고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던 중 유튜브로 같은 병명의 아이들을 검색해보다가 한국심장재단을 알게 되었어요. 절박한 상황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보았네요.

병원비 걱정 없이 아이 간호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국심장재단, 그리고 오뚜기에스에프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이의 가슴에 난 상처를 볼 때마다 아직도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반대로 이 상처를 훈장삼아 아이가 커갈 때 한국심장재단에 대해 꼭 얘기해주려고요.

***심실중격결손으로 수술받은 우림(2세)의 보호자가 보내주신 글입니다.**

(주)조흥

2011년 1월 후원 시작 ♥ 141명 후원

길환희

저의 희망이자 가정의 보물을 지켜주셨습니다

환희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선천성 심장기형을 진단받고, 병원 생활을 오래 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폰탄수술을 받았지요. 아이가 잘못되거나 잘 자라지 못하면 어쩌나 했던 우려와는 다르게 아이는 건강하게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부모 눈에 어떤 아이가 예쁘지 않겠냐만, 둘째로 태어나 장난기 많고 공룡을 좋아하는 아들은 저희 가족에게 더할 나위 없는 복입니다.

아이는 많이 자랐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아기 때 수술에 비해 오히려 더 마음이 가더군요. 수술실 들어가기 전 풀이 죽은 아들의 눈을 보면서 용기 내라고 다독였지만, 정작 저 또한 엄마를 많이 찾는 아들을 병원에 오래 두려니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약 2주로 예상됐던 입원 기간은 속절없이 길어져 40일이 지나서야 퇴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산소포화도 수치도 잘 나오고 환희도 쾌활함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의료보험제도, 실력 있고 친절한 아산병원 의료진들의 노력, 그리고 한국심장재단과 후원자님들의 도움이 모두 더해져 저의 희망이자 가정의 보물인 아이의 생명과 건강이 지켜졌습니다. 몇 마디 말만으로 그치기에는 너무나 큰 감사함이기에 저 또한 지역사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저희 가족이 받은 은혜와 후원을 되갚겠습니다. 환희와 같은 아픔을 가진 아이를 두신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이렇게 따뜻한 손길이 존재함을 두루 알려 걱정보다는 희망이 퍼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폰탄수술을 받은 길환희(3세)의 보호자 길명종 님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엄마와 딸이 모두 심장병 치료받고 잘 일어선 이야기

딸도 저도 오뚜기 덕분에 지금 많이 행복합니다!

두 번째 심장수술이라니

1990년 11월 4일, 저는 쌍둥이 오빠와 함께 대구 경북대병원에서 8개월 만에 1.6kg의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여러 검사 끝에 선천성 심장병(TOF, 팔로4징후) 진단을 받았고, 당시 경북대병원에서는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태어난 지 63일째 되어 2.2kg의 몸무게에 2개월 시한부 소견을 받고 퇴원해 본가인 경북 문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지만, 두 살 무렵 무산소 호흡 발작이 생겨 서울 세브란스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설준희 교수님에게 폐동맥이 좁아 호흡하는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 인조혈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여섯 살이 될 때까지 꾸준히 심장 상태를 지켜보다가 조범구 교수님에게 완전교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조범구 교수님은 진료가 없는 날에도 저를 위해 일부러 병원에 오셔서 제 심장 상태를 봐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인조혈관 삽입 시술을 받을 때는 엄마가 한국심장재단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나, 2차 완전교정 수술을 받을 때는 조범구 교수님이 한국심장재단을 알려주셔서 지원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체구는 작았으나 완전교정 수술 후에는 병원 갈 일도 없었고, 심장수술을 했다는 것을 잊고 살 정도로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몇 날 며칠 눈물로 지새우며

그리고 세월이 흘러 작년 사랑하는 이를 만나 결혼했고 첫아이 서진이를 품게 되었습니다. 임신 26주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는데, 28주 차에 다니던 동네 산부인과에서 태아 정밀 초음파를 보던 중 더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해서 임신 30주쯤 대구 칠곡경북대병원에 갔습니다. 거기서 태아 심장초음파를 봐주신 교수님으로부터 서진이도 최종적으로 팔로4징후 진단을 받았습니다.

글, 사진 **김설아** | 서진이 엄마 김설아 씨는 26년 전 한국심장재단의 후원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금년 5월, 딸 서진이도 오뚜기 관계사 알디에스(주)의 후원으로 심장수술을 받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어 정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몇 날 며칠을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요. 곧 태어날 서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하늘도 원망스러웠고, 남편에게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다독여주었고, 주치의이신 차현화 교수님은 수술하면 아무 문제없이 자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군요. 저희 부부는 경북대병원 의료진을 믿고 2021년 10월 26일 서진이를 출산했습니다. 출산 후 아기는 집중치료실 신세를 져야 했지만, 다행히 안정적으로 잘 버텨주어서 한 달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큰 위험한 이벤트 없이 꾸준히 칠곡경북대병원 소아심장 전문 김여향, 권정은 교수님께 외래진료를 받다가 올해 5월 10일 대구경북대병원 이영옥 교수님(흉부외과)께 완전교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 당장 필요한 수술비를 마련할 방법을 생각하던 중에 엄마로부터 저도 1996년쯤 수술받을 때 한국심장재단의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진이도 지원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한국심장재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침내 서진이도 한국심장재단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놀라웠던 일은 제 생명의 은인이신 조범구 교수님이 한국심장재단 이사장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까요? 정말 꼭 한 번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 특별한 인연, 그리고 감사

한국심장재단의 지원으로 서진이는 지난 5월 10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심방과 심실에 있는 구멍을 패치로 막은 후 좁아진 폐동맥을 넓히는 수술이었습니다. 이영옥 교수님은 폐동맥 자기 판막까지 살리려고 애썼지만, 판막의 모양과 기능상으로는 살리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5시간의 긴 수술 끝에 서진이는 무사히 생명의 동아줄을 잡았습니다. 그후 부정맥 등 위험한 상황이 생겨 서진이는 중환자실을 3번씩이나 오갔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잘 회복해 수술 후 거의 한 달 만인 6월 7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타깝게 퇴원 후에도 폐 컨디션이 좋지 않아 집에서 2-3개월 정도 양압기 호흡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호흡기에 의지하지 않고 무럭무럭 잘 크고 있습니다. 서진이는 수술 전보다 확실히 좋은 혈색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집에도 다니며 하루하루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동맥 인공판막을 넣어야 할 수도 있지만 운이 좋으면 저처럼 성인이 될 때까지 추가 수술 없이 지낼 수도 있다고 하니, 다시 기도하는 마음이 됩니다.
선천성 심장병 진단 후 수술을 받기까지 모든 하루가 걱정과 애타는 마음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행복합니다. 너무 잘 웃고 건강하게 자라는 서진이를 보며 저희 부부는 하늘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앞으로 서진이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랄 수 있게 부모로서 아이를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갓뚜기라는 별명을 가진 기업 오뚜기는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착한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30년 동안 기업의 어려운 시기가 있었을 때도 함태호 명예회장님의 뜻에 따라 선천성 심장병 환아들을 꾸준히 도왔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1996년 한국심장재단의 지원을 받아 두 번째 심장수술을 받았을 때 저 역시 오뚜기의 지원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그리고 26년이 지난 지금, 딸 서진이도 오뚜기 관계사인 알디에스(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 오뚜기와 한국심장재단이 많은 심장병 환아들을 위해 지금처럼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환아들과 부모님들이 큰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선천성 심장병을 안고 태어난 환아들이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고, 오뚜기 또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심장수술 받은 아이와 만화 그리는 엄마 이야기

오뚜기의 노랑처럼 밝고 밝게 자라렴

글, 사진 박진희 | 일곱 살 보늬를 키우고 있는 보늬 엄마 박진희 님이 보내주신 글. 보늬 엄마는 인스타그램에서 심장수술을 받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는 보늬네 이야기(dubune.geurimilgijang)를 만화로 그리고 있다.

눈물 범벅이 된 그날

보늬의 심장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건 임신 중 정밀 초음파검사를 받던 날이었습니다. 초음파 화면을 보시던 선생님들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 검사 시간이 길어졌지요. 그리고 주치의 선생님은 바로 서울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권하셨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이던 부부들 속에서 저희 부부만 울고 있었어요. 그때 기억이 어제 일처럼 또렷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인터넷 검색뿐이었습니다. 보늬의 진단명을 매일같이 검색하고 마지막 페이지까지 며칠을 봤었지요. 그렇게 한국심장재단을 알게 됐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열었던 편지

그날은 입원해 있던 보늬와 잠시 떨어져 집에 다녀오는 날이었습니다. 보늬는 보늬 아빠가 봐주고요. 우체통에 한국심장재단에서 온 편지가 있었습니다. 너무 떨려서 바로 열어 보질 못했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다시 병원으로 향하던 길, 버스 안에서 편지를 열어 보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후원이 결정되었고 후원을 해주시는 곳은 오뚜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00일쯤 첫 수술을 받았고, 다섯 살 때 두 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두 번 다 오뚜기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뚜기와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 보늬는 무사히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병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그리웠던 건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아주 소소한 일상들이었습니다. 보늬는 두 번째 수술을 받았을 때 동물원에 가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 걸 모르고 당연한 일이라 여기며 지내왔구나 싶었습니다. 폰탄수술을 마친 후엔 약속한 대로 우리 세 가족은 동물원에 다녀왔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음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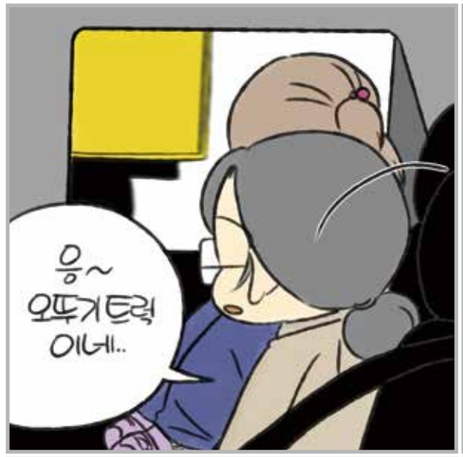
보늬가 심장이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뚜기의 선행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뚜기 로고만 봐도 친근한 기분이 들어 혼자 내적 친분이 굉장하답니다(하하). 오뚜기 하면 생각나는 밝은 노랑색처럼 오뚜기는 제게 밝은 노랑색 그 자체입니다.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우리 가족의 오뚝이가 되어준 오뚜기,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뚜기처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보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정기후원으로

보늬의 심장이 아파 아픈 날도 많았지만, 감사한 날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의 마음까지 보살펴준 한국심장재단과 오뚜기에 늘 감사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후원을 받은 후, 작지만 한국심장재단에 정기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 부부의 생각이지만 어른이 된 보늬가 그 후원을 이어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하하). 이건 아직 먼 훗날의 이야기니 많은 분들이 지켜주신 저희 보늬, 바른 아이로 몸도 마음도 단단하고 튼튼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한국심장재단과 오뚜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내 심장 안에 오뚜기 있다!

작가 / 박진희



사랑으로 새 생명을!

한국심장재단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치료 위기에 처한 심장병 환자들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환자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진료비 지원 사업

공정 신속 시스템 공정하고 신속한 치료비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선천성 심장병, 후천성 심장병, 안면기형, 장기이식, 만 18세 이하 기타 질환 환자들의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984년 & 39,110명 1984년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을 시작해 2021년까지 39,110명의 환자에게 치료비를 후원했습니다. 매년 1천여 명의 환자가 한국심장재단을 통해 새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심장병 예방 사업

심장병 강좌 및 무료진료 진료 기회가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심장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검진 기회를 제공합니다.

심장병 예방을 위한 '한 걸음 더' 걷기대회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걷기운동으로 심장병을 예방하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걷기대회를 매년 개최합니다.

의료진 연수지원 사업

개발도상국 의료진 연수 개발도상국 의료진이 자국에서 직접 소아심장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소아심장 수술 관련 의료인 5명을 한 팀으로 초청해 연수를 제공하는 팀 단위 장기 연수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해 현지 병원 방문 평가 및 교육, 3개월 단기 초청 연수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진 해외연수 소아심장 분야 인재 양성과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국내 소아심장 의료진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사 및 연구사업

퇴원환자 추적조사 연구 재단 지원으로 수술받은 선천성 심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 후 건강 상태와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환자와 보호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심장병 치료 현황 조사 전국 70여 개 병원을 대상으로 매년 우리나라 심장병 치료 현황을 조사해 재단의 진료지원 사업과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수논문상 수여 심장병 예방과 치료에 대한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논문상을 제정, 우리나라 심장질환에 대한 지속적 연구활동을 지원합니다.

※ 수술비 지원 안내

지원 병명 선천성 심장병, 후천성 심장병, 안면기형, 장기이식, 만 18세 이하 기타 질환

지원 대상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환자

후원 문의 진료지원팀 02-414-5321~3(내선 1번) / 이메일 heart@heart.or.kr

한국심장재단이 걸어온 길

- 1984.02.27 새세대심장재단 설립
- 1984.03.02 법인 설립 인가 선천성 심장병 진료비 지원
- 1986.10.25 제1회 선천성 심장병 강좌 및 무료진료
- 1989.03.31 <심장소식> 창간호 발간
- 1989.06.15 '한국심장재단'으로 법인 명칭 변경
- 1990.06.01 교포 및 외국인 심장병 환자 수술비 지원 시작
- 1994.01.01 재단 홈페이지 개설
- 1997.07.01 병명 및 연령 확대에 따른 진료비 지원 사업 확대
- 2004.01.29 개발도상국 의료진 연수지원 시작
- 2008.05.08 퇴원환자 추적조사 연구보고서 발간 (수술환자 11,000명)
- 2010.10.30 제1회 심장병 예방 '한 걸음 더' 걷기대회
- 2011.10.21 제1회 '한국심장재단 우수논문상' 시상
- 2013.09.26 제5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의료부문 수상
- 2015.12.31 30년사 발간
- 2118.10.25 대한흉부외과학회 의료봉사상 대상 수상
- 2020.01.01 국내 소아심장 의료진 해외 연수지원 시작

오직 한길,
심장병 환자들과 함께

후원 안내

한국심장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심장병 환자와 가족들은 또 다른 심장병 환자를
돕기 위해 정기후원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기부는 심장병 환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부로 이어져 우리 사회를 더 따듯하게
만들어가는 디딤돌이 됩니다.
당신의 기부가 가치 있고 소중한 이유입니다.

정기후원

매월 일정 금액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심장재단 홈페이지에서, 또는 전화로 신청해주세요.
문의 02-416-8763(사업팀 내선 2번)
홈페이지 www.heart.or.kr

성금후원

단 한 번의 후원이라도 큰 희망이 됩니다.
국민은행 064-25-0000-895
신한은행 140-002-899548
KEB하나은행 164-002915-00104
MG새마을금고 9002-1556-9056-6
NH농협 082-17-003390
우리은행 423-05-000361
SC제일은행 203-10-009417
우체국 012724-32-000048
지로번호 7513008
(예금주 : 한국심장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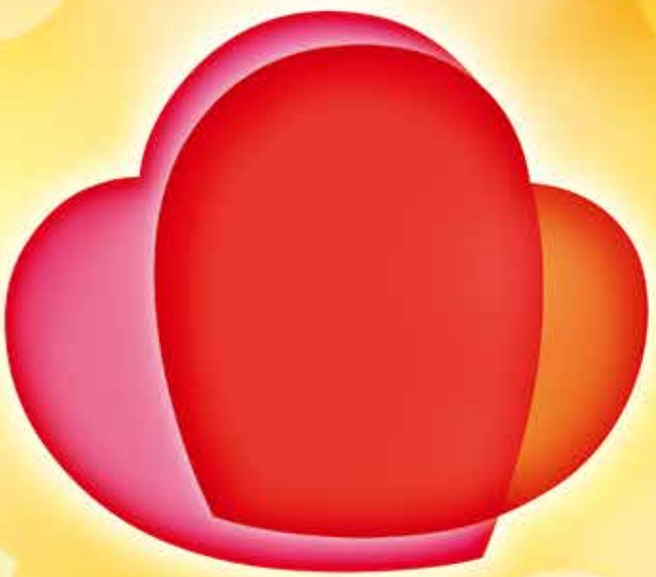
특별후원

신용카드 포인트도 기부할 수 있어요.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ARS 후원에 참여해주세요. **060-700-1133** 한 통화에 3,000원이 기부됩니다.
한국심장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도 가능합니다.

※ 한국심장재단에 후원하시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 4).

오뚜기®

30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후원사업 30주년



아이들의 심장이 뛰면
오뚜기의 가슴도 뜁니다

어린이날을 창립기념일로 정하고
어린이의 웃는 얼굴을 로고로 만들고

그렇게 아이들에 대한 오뚜기의 각별한 사랑은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후원사업으로 이어졌고
30년 동안 5,74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오뚜기는
건강하게 뛰어 노는 아이들에게서
가슴 벅찬 내일을 발견합니다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